

한전 납품비리 복마전...공기업 맞나

외제차·골프레슨비 등 '맞춤 뇌물' 무더기 적발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감사시스템 도마위에

한국전력의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수입자동차 등 '맞춤형' 뇌물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관행'처럼 협력업체에서 오랜 기간 '상납'을 받아오다 적발되면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던 '공기업 개혁'이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일각에서는 허술한 내부 감사 시스템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

이다.

한국전력 및 자회사 임직원 등 10여명은 최근 통신장비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현금·수입차 등 맞춤형 뇌물을 받았다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가 최근 공사 뒷돈 비리와 관련, 한전 나주시 전 지사장 노모(53)씨 등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을 기소한 데 이어 곧바로 다른 비

위 행위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액수와 뇌물 종류만 다를 뿐 최고위급부터 비리를 감시해야할 상임감사, 지사장, 전력공급팀장·배전차장 등 직위를 막론하고 직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비위 행위가 만연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한전은 더욱이 나주시 사건의 경우 '일부 직원 개인 비리'로 애써 외면하는 듯 하다가 검찰이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비위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자 부랴부랴 청렴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비리 이미지를 털어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한전 나주·영광지사 전 직원들의

뒷돈 비리와 관련, 오랜 기간 이뤄져온 비리 행위를 내부 감사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본사 감사실과 지역본부에 별도 감사팀을 운영 중이며 기동감찰팀도 따로 갖추고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전 직원들의 추가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이에 따라 비리가 발생하지 못할 전면적인 쇄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너 얼마나 컸니? 2일 오전 겨울방학이 끝난 광주시 남구 백운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서로 키재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 법률고문 공모...지역 법조계 관심

본사 이전 따른 법률자문·소송 사건 등 맡길 듯

한국전력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광주·전남지역 법률고문 공모에 나서면서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2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13일까지 한전 법률자문 및 소송 사건을 대리할 광주·전남지역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냈다.

한전 본사가 광주지방법원 관할 지역으

로 옮겨오는데 따라 관련 사건 등을 수행할 변호사 수요가 발생하는데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3인 이상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측은 올해 서울지역의 경우 30명,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명의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소송 추이 등을 지켜보며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공기업의 법률 고문이라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다, 관련 협력업체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쏟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진입으로 지난해 1월 297명인 광주지방 변호사회 등록 변호사 숫자도 346명으로 늘어난데다,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들의 가세로 사건 '솔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선인 경쟁이 치열한 지역 법조계 상황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8천만원서 1억으로 상향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상해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래 7년째 8000만원으로 유지됐다.

연환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1 달뜨기 17:35
해질 18:02 달지기 06:37

건조한 날씨. 산불조심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4/8 | 보성 | 구름많음 | -5/7 |
| 목포 | 구름많음 | -2/6 | 순천 | 구름많음 | 0/9 |
| 여수 | 구름많음 | 1/8 | 영광 | 구름많음 | -4/6 |
| 나주 | 구름많음 | -5/8 | 진도 | 구름많음 | -2/6 |
| 완도 | 구름많음 | -1/8 | 전주 | 구름많음 | -5/6 |
| 구례 | 구름많음 | -6/7 | 군산 | 구름많음 | -4/5 |
| 강진 | 구름많음 | -4/8 | 남원 | 구름많음 | -6/6 |
| 해남 | 구름많음 | -4/7 | 홍산도 | 구름많음 | 2/5 |
| 장성 | 구름많음 | -5/6 | | | |



| 지역 | 방향 | 파고(m) | 방향 | 파고(m) | |
|----|--------|-------|---------|-------|---------|
| 서해 | 안바다 | 북서~북 | 0.5 | 북서~북 | 0.5 |
| 남부 | 안바다 | 북서~북 | 0.5~1.0 | 북서~북 | 0.5~1.0 |
| 남해 | 안바다 | 북~북동 | 0.5 | 북서~북 | 0.5~1.0 |
| 서부 | 안바다(동)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1.0~2.0 |
| 남부 | 안바다(서) | 북~북동 | 0.5~1.0 | 북서~북 | 0.5~1.5 |

| 목포 | 밀물 | 썰물 |
|----|-------|-------|
| | 01:38 | 07:03 |
| | 14:22 | 19:38 |
| 여수 | 09:10 | 02:41 |
| | 21:15 | 15:11 |

| 4(수) | 5(목) | 6(금) | 7(토) | 8(일) | 9(월) | 10(화) |
|------|------|------|------|------|------|-------|
| ☀ | ☀ | ☀ | ☀ | ☀ | ☀ | ☀ |
| -2/6 | -2/4 | -2/4 | -2/5 | -3/3 | -3/5 | -3/7 |

| | |
|----|----|
| 동파 | 25 |
| 운동 | 60 |
| 빨래 | 90 |

내일 입춘...광주·전남 당분간 쌀쌀

광주와 전남은 입춘(立春·4월)이 지난 뒤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입춘 이후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이라고 2일 예보했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6도~9도 분포를 보이겠다.

입춘인 4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인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서해안지역은 낮부터 점차 흐

려져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7도 분포로 전남과 비교해 낮기온이 2도가량 떨어지는 등 당분간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주말인 8일 이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에 기온의 변화가 잦은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작년 임금체불 1조3000억으로 5년래 최대

1인당 451만원...제조업 31%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한 것으로, 2009년 30만1000명이 1조3438억원의 임금과 퇴

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403억원(56.1%),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연환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왕갈비탕(6,000원) 불백 (6,000원)

625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합류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지역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일 맞출브랜드로 손님을 꼭꼭익힌 반응을 얻고있습니다.